

‘운명의 2주’ 스타트…쟁점 많고 복잡해 치열한 법리 공방

변론 끝난 현재 철정보안속 평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끝난 후 결론을 내기 위해 현재가 본격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주도한다. 강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현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현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 주도 선고때까지 매일 열기로 대통령측 “현명한 판단 기대”

현재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헌법재판에서도 평의 과정 중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 때로는 고성도 오고 가기도 한다”며 “탄핵심판은 더욱 팽팽하게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평결 자체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현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으로 중계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현재가 평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현재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고, 대통령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없었다는 논지로 탄핵 각하·기각을 호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 대면조사 무산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앞 탄핵 찬반 대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를 연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 3일부터 경선 토론회 경쟁 본격화

이재명측 “당 제안 수용…완전 자유토론 이뤄져야” 안희정측 “시간 제한 없는 새로운 토론 방식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8일 당 선관위의 경선 토론회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돼 경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선캠프 공동대변인인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선거대책본부 ‘국민서비스센터’는 방송 토론에 대한 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철저한 후보 검증 등을 통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당에서 제안한 탄핵 전 2회, 투표소 투표 전 4회 등 총 10회는 절대 작오없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료읽기가 아닌 ‘완전 자유토론’, 충분한 토론시간 확보, 후보별 시간총량제를 통한 자율토론, 토

론자료 없는 ‘백지 토론’ 등 진행방식에 있어 후보 측의 제안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당 선관위가 경선 토론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핵선고 이전 방송토론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주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전날에 이어 예비후보자 대리인들을 함께 면담한 끝에 당이 제시한 토론회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김병욱 의원은 “당 선관위 방송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제시된 토론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지사 측 정재호 의원은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기존 형식에서 벗어

난 새로운 토론 방식을 제안했다.

안 지사 측 정재호 의원은 “후보자들 대리인들이 한자리에서 집합토론을 통해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됐다”면서 “토론 방식을 과거와 같이 편편률적으로 하지 말고, 방송사와 논의해 색다른 진행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난 28일 무안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6개월마다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을 탕평 인사 했는지 주권자들에게 보고하고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인들이 써왔던 역사는 자랑스러웠지만, 친일부패 기득권 세력이 가장 먼저 탄압하고 후대접했던 지역도 호남이었다”며 “정치인 누구나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한다. 공약 이행률 %%인 이재명은 다른 방식으로 약속드린다”고 탕평인사 실천을 공약했다.

촛불 vs 태극기…정치인들 3·1절 광장 대결

문재인 참석·안철수 불참…야권 주자들 엇갈린 행보 한국당 의원·대선주자 13명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여야 의원들이 1일 삼일절을 맞아 각각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집결하면서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당 대선주자들도 광장에 몰려 들어 탄핵 반대·찬성에 목청을 높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다음달 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서울시내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15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 뿐 아니라 한국당에서는 이날 태극기집회에 이 때까지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파악된 인사는 한국당 인사는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이만희 이원영 이우현 김석기

백승주 전희경 추경호 의원 등이다.

대선주자들과 의원단을 합치면 13명이 참석하는 것이며, 실제 참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거 촛불을 들고서 광장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낮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리는 ‘1919 그날의 함성’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 현장을 방문해 ‘임시정부의 범동을 부정하는 세력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뒷발인 호남을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로 향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선고일이 다가

오면서 인용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주자들도 함께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최대 지지세력으로 떠오른 촛불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회의가 열리면서 집회 참석은 취소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주자들의 경우 광장에 나서는 주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모두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안 전 대표 측은 “광장은 광장의 역할이,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광장에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